

# 二次元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混合系の 에너지 스펙트럼과 바닥상태에너지

姜 永 奉\*

Energy Spectrum and Ground State Energy in  
Two-Dimensional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Mixtures

*Kang Young-bong\**

## Summary

The energy spectrum and the ground state energy in two dimensional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mixtures are obtained from the grand partition function which is determined by the mixed ring-diagram method. In addition, the excess area coefficient is obtained from the ground state energy which expresses the Baym form.

## 序 論

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용액에 대하여 Bardeen등(1966) (이 후 BBP)은 현상론적으로 계의 바닥상태에너지를  $N$ 원자  $^4\text{He}$ 의 바닥상태에너지와  $N_s$ 원자  $^3\text{He}$ 의 과잉영점에너지로 구분하여 얻었다. 이 에너지 형태를 이용하여  $^3\text{He}$  준입자 사이의 유효 상호작용

및 과잉부피계수(excess volume coefficient 혹은 differential volume coefficient) 등을 구하였다.

그 후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러가지의 미시적 이론을 사용하여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용액을 기술하였다. McMillan(1969)은 액체  $^4\text{He}$ 에 2개의  $^3\text{He}$  원자를 고려하여 유효상호작용과 질량을 계산하였다. Woo 등 (1969)은 변분법에 기초를 두고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용액을 다루었다. Saam(1969)은 포논-준입자

\* 師範大學 專任講師

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계산했다. 최근에 와서 Lee와 Goodman(1980)은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였고, Fabrocini와 Polls(1982)은 Jastrow 형태의 과동함수를 사용하여 에너지와 화학퍼텐셜 등을 계산하였다. Isihara와 Kojima(1980, 1981)는 Ring-diagram 방법을 사용하여 바닥상태 에너지와 화학퍼텐셜 등을 구하였다.

본 논문에서는 Ring-diagram 방법을 사용하여 2차원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용액의 바닥상태에너지 등을 미시적으로 구한다. 그런데 2차원 혼합계에 대한 실험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값을 분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3차원에서의 BBP의 현상론적 결과와, 그리고 순수한 2차원 액체 <sup>4</sup>He에 대한 Isihara와 Um(1978)의 결과와 비교, 분석한다. Isihara와 Um(1978)은 2차원 <sup>4</sup>He에 대하여 Chain-diagram 근사를 적용하여 이체분포함수(pair distribution function)를 계산하여, 이로부터 바닥상태에너지 등을 구하였는데, 이 때 얻어진 이체분포 함수에 의한 내부에너지는 입자 사이의 first order direct coupling과 Ring-diagram 근사를 이용한 큰 분배함수(grand partition function)로부터 계산된 내부에너지와 일치한다.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2차원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용액에 대한 큰 분배함수의 기여를 이상기체, first order direct coupling, Ring-diagram 등으로 제한한다.

<sup>3</sup>He와 <sup>4</sup>He, <sup>4</sup>He와 <sup>4</sup>He 그리고 <sup>3</sup>He와 <sup>4</sup>He 사이의 상호작용 퍼텐셜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, BBP, Güyer와 Miller(1980) 그리고 Ristig 등(1983)의 이론에서처럼 모든 원자들 사이의 퍼텐셜은 같다고 가정한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은 Lennard-Jones형 꼬리를 갖는 soft 퍼텐셜을 도입하기로 한다.

$$\phi(r) = \begin{cases} v_0 & (r < a) \\ \epsilon^*[(a/r)^{12} - (a/r)^6], & (r \geq a). \end{cases} \quad \dots\dots\dots (1)$$

이 퍼텐셜의 운동량 공간에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.

$$u(q) = 2\pi a^2 v_0 J_1(qa)/qa + 2\pi a^2 \epsilon^* \left[ -\frac{(qa)^9}{(10!!)^2} + \frac{4}{10!!} (qa)^7 - \frac{64}{10!!} (qa)^5 + \left\{ \frac{6}{10 \times 10!!} - \frac{1}{(4!!)^2} \right\} (qa)^2 + \left\{ \frac{4}{(4!!)^2} - \frac{4 \times 48}{5 \times 10!!} \right\} \times (qa) \right] J_1(qa) + 2\pi a^2 \epsilon^* \left[ \frac{2}{10!!} (qa)^8 - \frac{2559}{10 \times 8 \times 10!!} (qa)^6 + \frac{1}{10 \times 10!!} (qa)^4 + \frac{3}{10^2} (qa)^2 - \frac{3}{20} \right] J_0(qa) - 2\pi a^2 \epsilon^* \times \left[ \frac{(qa)^4}{(4!!)^2} + \frac{(qa)^{10}}{10!!} \right] \times [r_0 + \ln qa - C_1(qa) - \sum_{k=1}^{\infty} \frac{(-1)^k (\frac{1}{2} qa)^{2k}}{2k(k!)^2}], (r_0=0.57712) \dots\dots\dots (2)$$

여기서 q는 파 벡터의 크기이다. q가 작을 때 우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.

$$2\pi u(q) = A_0^2 + A_1^2 q^2 + A_2^2 q^4 + \dots, \dots (3)$$

여기서

$$A_0^2 = 2\pi n a^2 v^*, \quad v^* = v_0 - \frac{3}{10} \epsilon^*,$$

$$A_1^2 = \frac{1}{4} \pi n a^4 \left( \frac{3}{2} \epsilon^* - v_0 \right),$$

$$A_2^2 = \frac{1}{96} \pi n a^6 \left\{ v_0 - \epsilon^* \left( 2 - \frac{3}{2} r_0 \right) \right\}$$

이다. q가 클 때는 우변 첫 항이 지배적 역할을 하며, q가 0일 때

$$u(0) = \pi a^2 v^* \dots\dots\dots (4)$$

로 주어진다.

1절에서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총 큰 분배함수를 구하고, 2절에서는 에너지 스펙트럼과 절대영도 극한에서의 바닥상태에너지 그리고 과잉면적계수

(excess area coefficient) 등을 계산한다. 아울러 계산 결과를 BBP의 에너지 형태 및 Isihara와 Um(1978)의 결과와 비교, 분석한다.

### 1. 큰 분배함수

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큰 분배함수는 이상기체의 기여와 입자들사이의 direct coupling의 기여, 그리고 혼합 Ring-diagram의 기여로 구분하여 계산된다.

#### 1) 이상기체의 기여

<sup>3</sup>He 및 <sup>4</sup>He에 대한 이상기체의 큰 분배함수는 다음과 같다.

$$\ln \mathcal{E}_0 = \frac{1}{2} \frac{A\beta P_F^2 \hbar^2}{2m_F} n_F + An_B, \dots\dots\dots (5)$$

여기서 우변은 각각 <sup>3</sup>He와 <sup>4</sup>He에 대한 큰 분배함수이다. A는 계의 총 면적이며, m\_F는 <sup>3</sup>He의 질량, n\_F와 n\_B는 각각 <sup>3</sup>He와 <sup>4</sup>He의 수밀도, 그리고  $\hbar P_F$ 는 페르미온의 운동량이며,  $P_F^2 = 2\pi n_F$ 의 관계가 있다.  $\beta = 1/k_B T$ 이다.

#### 2) First order direct coupling의 기여

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first order direct coupling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. 먼저 <sup>3</sup>He-<sup>3</sup>He 결합에서의 큰 분배함수는

$$\begin{aligned} \ln \mathcal{E}_1^F &= -\frac{A\beta}{8\pi^4} \int dp^3 dp'^3 u(0) f_F(p) f_F(p') \\ &= -\frac{A\beta P_F^4}{8\pi} u(0) \dots\dots\dots (6) \end{aligned}$$

로 주어진다. 여기서 무제인자는 2이며  $f_F(P)$ 는 페르미 통계의 분배함수이다. 다음으로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결합에서의 큰 분배함수는

$$\begin{aligned} \ln \mathcal{E}_1^B &= -\frac{A\beta}{32\pi^4} \int dp^3 dp'^3 u(0) f_B(p) f_B(p') \\ &= -\frac{1}{2} A\beta U(0) n_B^2 \dots\dots\dots (7) \end{aligned}$$

이다. 여기서 스핀무제인자는 없으며  $f_B(P)$ 는 보스 통계의 분포함수이다. 마지막으로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결합에서의 큰 분배함수는

$$\begin{aligned} \ln \mathcal{E}_1^{FB} &= -\frac{A\beta}{8\pi^4} \int dp^3 dp'^3 u(0) f_B(p) f_F(p') \\ &= -A\beta U(0) n_B n_F \dots\dots\dots (8) \end{aligned}$$

이다. 여기서 쌍(pair)의 수는  $N_F N_B$ 이며 순수한 <sup>3</sup>He 및 <sup>4</sup>He의 경우에는 각각  $N_F^2/2$ ,  $N_B^2/2$ 이다. 이상의 가능한 결합에 대한 큰 분배함수를 합하여 정리하면

$$\ln \mathcal{E}_1 = -\frac{1}{2} A\beta U(0) n^2 \dots\dots\dots (9)$$

이 된다. 여기서  $n = n_B + n_F$ 이다.

#### 3) Ring-diagram의 기여

혼합계의 Ring-diagram의 기여는 Isihara와 Kojima(1980)의 계산 결과를 2차원에 대하여 고쳐 쓰면

$$\begin{aligned} \ln \mathcal{E}_r &= \frac{A}{2(2\pi)^2} \int d\vec{q} \sum_{j=-\infty}^{\infty} \{ u(q) \wedge_j - \\ &\ln(1 + u(q) \wedge_j) \} \dots\dots\dots (10) \end{aligned}$$

로 주어진다. 여기서  $\wedge_j$ 는 Ring-diagram의 유효 고유값이며 보오존과 페르미온 전파인자의 고유값의 합이다. 이는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쓸 수 있다.

$$\begin{aligned} \wedge_j &= \frac{4m_B n_B / \hbar^2}{q^2 + (4\pi j m_B / \beta q \hbar^2)^2} \left[ 1 + y \left\{ 1 - \frac{2\delta m (4\pi j m_B / \beta q \hbar^2)^2}{q^2 + (4\pi j m_B / \beta q \hbar^2)^2} \right\} \right], \dots\dots\dots (11) \end{aligned}$$

여기서

$$\delta m = \frac{m_F - m_B}{m_B}, \quad y = \frac{n_F}{n_B}$$

이다. (11)식을 (10)식에 대입하여 합을 취하면

$$\ln \bar{\epsilon}_r = \frac{\beta A}{2(2\pi)^2} \left( \frac{1+y-\delta my}{1+y} \right) \int d\vec{q} [u(q) n_B(1+y) - \frac{\hbar^2 q^2}{2m_B} \{q^2 + r^2(1+y)\}^{\frac{1}{2}} + \frac{\hbar^2 q^2}{2m_B}] \dots \dots \dots (12)$$

이 된다. 여기서

$$r^2 = 4m_B n_{B0}(q) / \hbar^2$$

이다.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총 큰 분배함수는 (5)식과 (9)식 그리고 (12)식을 합한 것이며, 다음과 같다.

$$\ln \bar{\epsilon} = \ln \bar{\epsilon}_0 + \ln \bar{\epsilon}_1 + \ln \bar{\epsilon}_r \dots \dots \dots (13)$$

우변 마지막 항의 적분 계산은 2절에서 다루어진다.

### 2. 에너지 스펙트럼과 바닥상태에너지

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내부에너지는 (13)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.

$$U = - \left( \frac{\partial \ln \bar{\epsilon}}{\partial \beta} \right)_{A, Z} \dots \dots \dots (14)$$

(14)식의 계산 결과에 절대영도 극한을 취하고  $n_F^2$  항을 무시하면 바닥상태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된다.

$$E/A = \frac{1}{2} u(0) n^2 + \frac{1}{2(2\pi)^2} \left( \frac{1+y-\delta my}{1+y} \right) \int d\vec{q} \left[ \frac{\hbar^2 q}{2m_B} \{q^2 + r^2(1+y)\}^{\frac{1}{2}} - \frac{\hbar^2 q^2}{2m_B} - u(q) n_B(1+y) \right] \dots \dots \dots (15)$$

(15)식은 Isihara와 Um(1978)이 순수한 액체 <sup>4</sup>He에 대한 계산 결과와 좋은 대응관계를 준다. 만

약  $y=0$ 일 때, 즉, <sup>3</sup>He의 농도가 영일 때 (15)식은 이들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. 그리고 이들의 순수한 <sup>4</sup>He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.

$$\epsilon(q) = \left[ \left( \frac{\hbar^2 q^2}{2m_B} \right)^2 + 2n_{B0}(q) \frac{\hbar^2 q^2}{2m_B} \right]^{\frac{1}{2}} \dots (16)$$

(15)식과 Isihara와 Um(1978)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,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에너지 스펙트럼은

$$\epsilon(q) = \frac{1+y-\delta my}{1+y} \frac{\hbar^2 q}{2m_B} \{q^2 + r^2(1+y)\}^{\frac{1}{2}} \dots \dots \dots (17)$$

이 된다. 만약 <sup>3</sup>He의 농도가 영일 경우에 (17)식은 (16)식과 완전히 일치한다. 그리고 위 식은 3차원에서의 Isihara와 Kojima(1978)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, 이는  $q$ 가 작을 경우에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전파인자의 고유값이 같은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이며 이 식을 이용하면 3차원에서의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의 또는 속도를 <sup>3</sup>He의 농도의 함수로 얻을 수 있다.

(15)식의 적분 계산을 위하여 Lennard-Jones형 꼬리를 갖는 soft 퍼텐셜을 적용하면, 바닥상태에너지는

$$\frac{E}{A} = \frac{1}{2} n^2 u(0) \left\{ 1 - \frac{f}{4\pi n a^2} \right\} + \frac{n_F}{8\pi a^2} u(0) \delta m f \dots \dots \dots (18)$$

로 주어진다. 여기서

$$f = 1 - \frac{4}{3a\gamma(1+y)^{\frac{1}{2}}} + \frac{1}{a^2 r^2(1+y)} + 2a^2 r^2(1+y) \left( \frac{V_0}{V^*} \right)^2 \delta + \frac{1}{16V^*} \left( \frac{3}{2} \epsilon^* - V_0 \right),$$

$$r^2 = 4m_B n_{B0}(0) / \hbar^2,$$

$$\delta = -0.0112$$

이다. 우변 첫 항은 N입자 <sup>4</sup>He의 바닥상태에너지를 나타내며 y=0일 때 Isihara와 Um(1978)이 계산한 순수한 <sup>4</sup>He의 바닥상태에너지와 일치한다. 그리고 마지막 항은 m<sub>B</sub>=m<sub>F</sub>일 때 없어진다.

BBP는 현상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 형태를 제시하였다.

$$E(N) = E_0(N) + N_F E(N), \dots\dots\dots (19)$$

여기서 E<sub>0</sub>(N)은 N <sup>4</sup>He 원자의 바닥상태에너지이며, N<sub>F</sub>E<sub>1</sub>(N)은 <sup>3</sup>He의 과잉 영점에너지이다. (18)식을 Baym(1966)의 에너지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다.

$$E_0(N) = \frac{1}{2} nN u(0) \left\{ 1 - \frac{f}{4\pi n a^2} \right\} \dots\dots (20)$$

$$E_1 = \frac{\delta m}{8\pi a^2} u(0) f \dots\dots\dots (21)$$

(20)식과 (21)식은 Isihara와 Kojima(1980)가 3차원에서 얻은 결과와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.

Baym(1966)은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<sup>4</sup>He 원자를 <sup>3</sup>He원자로 바꾸어 넣었을 경우, 부피의 상대적 증가를 나타내는 과잉부피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.

$$\alpha = \frac{E'_1(N)}{E''_0(N)} \dots\dots\dots (22)$$

여기서 프라임(prime)은 총 입자수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. 3차원에서처럼 2차원에서도 과잉면적계수 α를 (22)식과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, 순수한 <sup>4</sup>He에 대하여

$$\alpha = \frac{\frac{\delta m}{8\pi \bar{n}_B a^2} \left\{ \frac{2}{3a\bar{r}} - \frac{1}{a^2 \bar{r}^2} + 2a^2 \bar{r}^2 \left( \frac{V_0}{V^*} \right)^2 \delta \right\}}{1 - \frac{1}{8\pi \bar{n}_B a^2} \left\{ \frac{2}{a\bar{r}} + 4a^2 \bar{r}^2 \left( \frac{V_0}{V^*} \right)^2 \delta \right\}} \dots\dots\dots (23)$$

로 주어진다. 여기서 n<sub>B</sub>는 순수한 <sup>4</sup>He의 수밀도이며  $\bar{r}^2 = 4m_B \bar{n}_B u(0) / \pi^2$ 이다. 그리고 α는 <sup>3</sup>He 준입자의 유효상호작용을,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혼합계의 수밀도 n와 순수한 <sup>4</sup>He의 수밀도  $\bar{n}_B$ 의 관계식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α의 수치적 계산과 α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계산은 본 논문 밖에 있다.

## 結果 및 考察

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 용액에 대하여, 이체분포함수에 나타나는 first order direct coupling과 Ring-diagram 근사를 이용하여 큰 분배함수를 구하였다. 그리고 바닥상태에너지를 큰 분배함수로 부터 계산하였으며 이 때 순수한 <sup>4</sup>He에 대한 Isihara와 Um(1978)의 결과와 좋은 대응 관계를 얻었다. 그리고 <sup>3</sup>He의 농도가 0일 때는 그들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함을 보였다. 더불어서 혼합 용액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들이 계산한 에너지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유도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바닥상태에너지를 Baym (1966)의 현상론적 에너지 형태로 쓸 수 있었으며 이로 부터 <sup>3</sup>He 준입자사이의 유효상호 작용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잉면적계수를 미시적으로 계산 하였다.

본 논문에서는 Lennard-Jones형 꼬리를 갖는 soft 퍼텐셜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입자사이의 퍼텐셜은 같다고 가정하여 위의 결과들을 얻었다. 만약에 퍼텐셜 매개변수들의 값이 적절히 주어진다면 수치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주리라 확신한다.

## 摘 要

2차원 <sup>3</sup>He-<sup>4</sup>He 혼합계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바닥상태에너지를 혼합 ring-diagram 근사로 부터 얻은 큰 분배함수를 사용하여 유도하였다. 더불어서 과잉면적계수를 Baym의 에너지 형태로 표현된 바닥상태 에너지로 부터 얻었다.

## 参 考 文 献

- Bardeen, J., G. Baym, and D. Pines. 1966. Interactions between  $^3\text{He}$  atoms in dilute solutions of  $^3\text{He}$  in superfluid  $^4\text{He}$ . *Phys. Rev. Lett.*, 17:372-375.
- Baym, G. 1966. Effective long-wavelength interaction of  $^3\text{He}$  atoms dissolved in superfluid  $^4\text{He}$ . *Phys. Rev. Lett.*, 17: 952-954.
- Fabrocini, A. and A. Polls. 1982. Variational study of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mixtures, *Phys. Rev.*, B25: 4, 533-4, 540.
- Guyer, R. A. and M. D. Miller. 1980. Grand state of isotopic fermion-boson mixtures, *Phys. Rev.*, B22: 142-153.
- Isihara, A. and C. I. Um. 1978. Microscopic theory of two dimensional liquid helium, *Phys. Rev.*, B19: 5, 725-5, 734.
- Isihara, A. and Y. Kojima. 1978. Phonon velocity in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solutions, *Physica.*, B95: 391-394.
- Isihara, A. and Y. Kojima. 1980. Microscopic theory of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solutions, *Z. Phys.*, B37: 1-8.
- Isihara, A. and Y. Kojima. 1981. Statistical mechanics of dilute mixtures of  $^3\text{He}$  in superfluid  $^4\text{He}$ , *Physica.*, B103: 247-262.
- Lee, W. K. and B. Goodman. 1980. Monte Carlo study of liquid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solutions, *Phys. Rev.* B24: 2, 515-2, 525.
- McMillan, W. L. 1969. Quantum liquid. II. Microscopic theory of liquid  $^3\text{He}$ - $^4\text{He}$  mixtures, *Phys. Rev.*, 182: 299-306.
- Ristig, M. L., S. Fantoni, and K. E. Kurten. 1983. Ground state properties of boson-mixtures, *Z. Phys.*, B51: 1-9.
- Saam, W. F. 1969. Microscopic theory of phonon-quasiparticle interactions in dilute solutions of  $^3\text{He}$  in superfluid  $^4\text{He}$ , *Ann. Phys.*, 53: 219-238.
- Woo, C. W., H. T. Tan, and W. E. Massey. 1969. Theory of dilute solutions of  $^3\text{He}$  in liquid  $^4\text{He}$ . *Phys. Rev.*, 185: 287-298.